

축산농가 소득 가장 높다 전업화·규모화로 소득 해결

통계청, 2005년도 통계 분석

축산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4천4백6만1천원으로 영농 형태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는 논벼농가의 가구당 평균소득 2천2백6십4만8천원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축산농가 다음으로 특작, 화훼농가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UR이후 빠르게 규모화 되었고 특히 2005년도 축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농가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2%로 다른 영농농가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채소농가의 농업소득 비중 53%, 논벼농가의 농업소득 비중 43.4%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축산농가의 전업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농가와 함께 농가소득이 높은 특작, 화훼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각각 71.3%, 73.9%로 축산농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농업총수입 2천6백4십9만6천원 중 축산수입이 6백3십8만6천원으로 24.1%의 비중을 차지했다.

- 2006. 05. 23. / 수의축산신문 -

한·미FTA 양봉업계 비상

한·미FTA 추진으로 전 축산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특히 양봉업계는 이를 산업의 존폐가 걸린 중대사안으로 분류하고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꿀의 수입관세는 243%로 최고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국내 꿀의 수요의 93.3%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선 고율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요구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양봉협회(회장 전기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꿀 가격이 50%이상 하락하고, 현 4만여 양봉농가가 2만 농가로 감소할 것이며, 연간 1천3백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양봉산업은 아직 FTA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황”이어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꿀 등은 예외조항으로 관리해 밀원수 식재나 유통질서 확립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봉협회 역시 벌꿀에 대해 우선 협상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추진하고 만약 불가피할 경우 현행 관세를 50%까지 연차별로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통해 제3국의 꿀이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2006. 06. 02. / 축산신문 -